

報 道 資 料

2004년 5월 4일 18시 30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국제 엠바고를 지켜주십시오.

Embargo : 2004년 5월 4일 화요일 18:30



보도 관련 문의	정진호 원장, 경쟁력 평가원 IMD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 파트너 jeong@cvikorea.net 011-475-2014 02-785-3658, fax 02-785-365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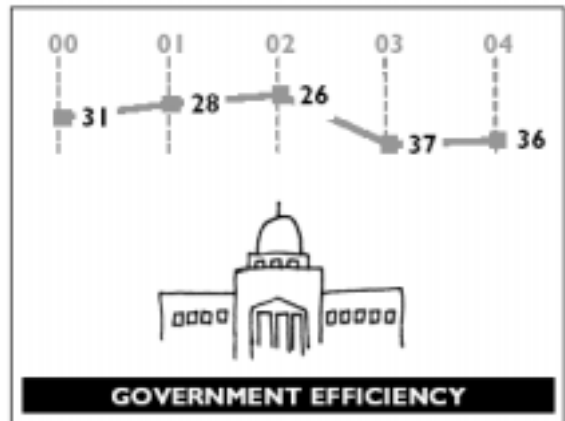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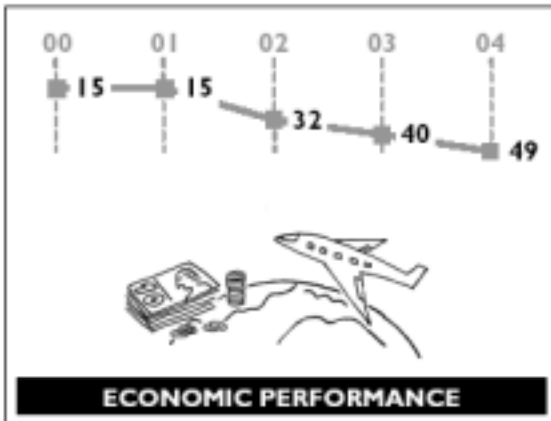
-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4년 5월 4일 전 세계 51개 국가와 9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2004 IMD 세계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을 발표 했다.
- 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35위로 평가 되었는데, 이는 전년 37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국가와 지역 중에는 12위로 태국(10위)과 인도(11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일인당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세계 34개 경제 중에서는 28위로 이스라엘(27위), 포르투갈(30위)과 비슷한 경쟁력 수준이다.
- 인구 2천만 명 이상 30개 경제 중에는 한국이 15위(2003년 13위)로 미국(1위), 캐나다(2위), 호주(3위), 대만(4위), 말레이시아(5위), 중국 제장성(6위), 독일(7위), 영국(8위), 일본(9위), 중국(10위), 태국(11위), 프랑스(12위), 스페인(13위), 인도(14위)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마하라슈트라(16위), 필리핀(22위), 인도네시아(28위) 만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낮다.
- 각 부문별 경쟁력 순위로 보면
 - ◆ 우리나라는 광대역 통신 이용자수(1위), 연구 개발 인력 1인당 특허권 획득 수(3위), 인터넷 사용자 수(5위), 총연구개발비 지출 GDP 비중(10위) 면에서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 ◆ 산업용 전기요금(53위), 교사1인당 초등학생 수(56위), 대도시 생계비지수(55위), 총교육비지출 GDP비중(52위), 외국인 직접 투자유입 GDP비중(54위)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다.

□ 자료출처

- 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http://www.imd.ch/wcy>
- 2) 경쟁력평가원 2004년도 IMD평가 국가경쟁력 보도자료, <http://www.cvikore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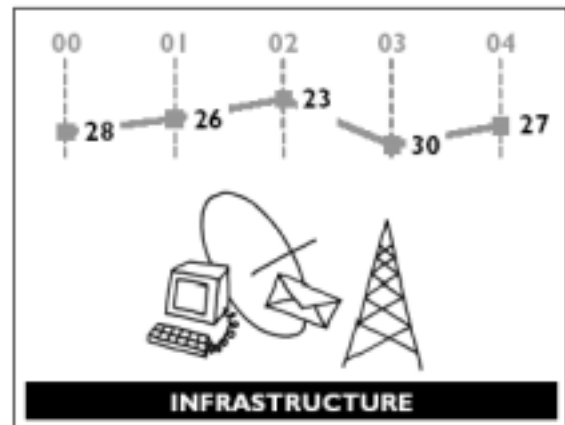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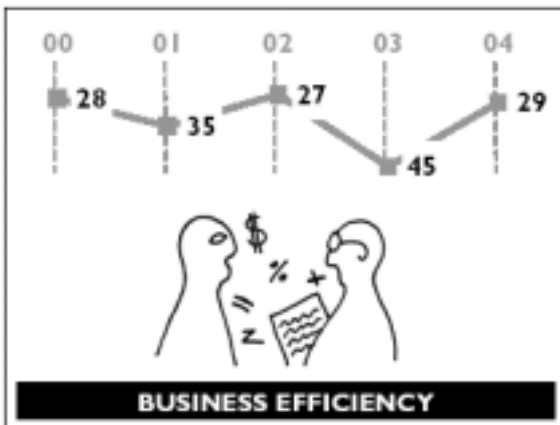
<표 1> 60개 국가·지역 중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한국 경제의 IMD 평가 국가 경쟁력 4개 부문별 변화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9위	29위	29위	37위	35위



1. 경제운영성과	2004년
1.1 국내 경제 활력	35위
1.2 국제 무역	32위
1.3 해외 투자	54위
1.4 고용 및 실업	18위
1.5 물가 및 생계비	56위

2. 정부행정효율	2004년
2.1 재정구조	2위
2.2 재정정책	22위
2.3 경제제도기구	37위
2.4 기업관련 입법	45위
2.5 사회정서	59위



3. 기업경영효율	2004년
3.1 생산성	32위
3.2 노동시장	36위
3.3 자금시장효율	40위
3.4 기업경영관행	39위
3.5 태도 및 가치관	19위

4. 발전인프라구축	2004년
4.1 경제 인프라	55위
4.2 기술 인프라	8위
4.3 과학 인프라	19위
4.4 보건 및 환경	32위
4.5 교육경영	44위

□ 한국, 국가경쟁력 추락 위기 탈출

- ◆ 작년 8등급하락에서 올해 2등급 상승으로 반전
- ◆ 2002년 29위에서 2003년 37위로 급락했던 추세는 일단 멈춤

- 세계 주요나라의 IMD 평가 국가경쟁력 추이를 보면 미국은 IMD가 최초로 국가경쟁력평가를 시작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가 9회, 룩셈블그가 3회, 일본이 1회(1993년)차지 했다.

- 60개 경제 가운데 상위 20위 안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2위), 홍콩(6위), 대만(12위), 말레이시아(16위), 중국제장(19위)이 있으며, 아메리카지역에서는 미국(1위), 캐나다(3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럽지역 경제이다.

- 한국은 1992년부터 1997년 까지는 25위에서 30위안에 머무르다가 IMF 외환위기때 41위까지 추락하였으며 2000년에 29위로 회복되었다가 2003년 37위로 다시 추락하여 경쟁력 하락 위기를 맞았다.

- ◆ IMD가 198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평가기준은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위해 요구되는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능력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다.

- ◆ IMD는 「2004년 세계경쟁력 연감」에 국가경쟁력 평가항목으로 323개 지표를 사용하며 이 가운데 통계지표(hard data)를 129개, 서베이지표(softdata)를 112개 총 241개를 이용하여 국가경쟁력 구성 4개 부문 20개 항목의 순위 계산에 사용하며 나머지 82개 지표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항목은 4개 부문으로, 경제 운영성과 (83개 지표)로 국내경제활력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를, 정부행정효율 (77개 지표)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기업경영효율 (69개 지표)로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능력, 이윤추구, 경영책임성의 기준을 평가하며, 발전인프라구축(94개 지표)으로 경제기반,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인적자원 활용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지를 평가한다.

<표 2>

2004년도 IMD 평가 세계 경쟁력 순위									
(60개 국가(지역))									
국가(지역)	2004년		2003년		국가(지역)	2004년		2003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미국	1	100.0	1	100.0	스페인	31	67.4	27	61.8
싱가폴	2	89.0	4	86.1	(프랑스 일드 프랑스)	32	64.6	24	65.6
캐나다	3	86.6	6	80.7	이스라엘	33	63.5	33	55.9
호주	4	86.0	7	80.6	인도	34	63.0	50	45.5
아이슬란드	5	86.0	8	80.2	한국	35	62.2	37	54.2
홍콩	6	85.8	10	79.2	(영국 스코틀랜드)	36	62.0	·	·
덴마크	7	84.4	5	80.9	(프랑스 론 알프스)	37	61.4	32	60.0
핀란드	8	83.6	3	86.7	(인도 마하라슈트라)	38	59.6	44	48.9
룩셈불그	9	83.1	2	87.7	포르투갈	39	58.5	39	53.0
아일랜드	10	80.3	11	78.0	슬로바키아	40	57.5	46	48.3
스웨덴	11	79.6	12	77.4	콜롬비아	41	57.4	45	48.4
대만	12	79.5	17	71.1	헝가리	42	57.2	34	55.8
오스트리아	13	78.9	14	75.5	체코	43	56.4	35	55.3
스위스	14	78.8	9	79.4	그리스	44	56.3	42	51.6
네덜란드	15	78.6	13	76.6	슬로베니아	45	55.5	40	51.8
말레이시아	16	75.9	21	68.3	(이탈리아 롬바르디)	46	55.3	36	55.2
노르웨이	17	75.5	15	74.9	(브라질 상파울로)	47	55.0	43	49.3
뉴질랜드	18	74.4	16	72.7	요르단	48	54.1	48	46.8
(중국 제장)	19	74.3	38	53.8	남아공화국	49	53.8	47	47.7
(독일 바바리아)	20	73.7	31	60.3	러시아	50	52.1	54	36.7
독일	21	73.4	20	69.8	이탈리아	51	50.3	41	51.6
영국	22	72.2	19	70.3	필리핀	52	49.7	49	46.0
일본	23	71.9	25	63.2	브라질	53	48.1	52	44.5
중국	24	70.7	29	60.9	루마니아	54	48.0	51	44.6
벨기에	25	70.3	18	70.4	터키	55	43.5	56	30.8
칠레	26	69.9	26	62.1	멕시코	56	43.2	53	39.4
(스페인 까탈로니아)	27	69.8	28	61.3	폴란드	57	42.0	55	33.9
에스토니아	28	68.4	22	66.6	인도네시아	58	38.1	57	26.2
태국	29	68.2	30	60.9	아르헨티나	59	36.9	58	22.0
프랑스	30	67.7	23	65.8	베네수엘라	60	24.7	59	21.7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활력 회복이 시급함.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크게 하락한 후 2004년에 가장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분야는 경제운영성과(32위 → 40위 → 49위)와 정부행정효율(26위 → 37위 → 36위)이며, 기업경영효율(27위 → 45위 → 29위)과 발전인프라구축(23위 → 30위 → 27위)은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다.
- 경제활력회복에 가장 걸림돌로 나타나는 분야는 해외투자(54위)와 물가 및 생계비(56위) 항목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GDP비중(54위)과 국내기업 해외진출 증가율(40위)이 급격하게 줄었고, 기업 경영자들은 연구개발시설의 해외이전(49위)과, 생산시설이전에 따른 경쟁력 하락(45위)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생계비가 미국 뉴욕시와 맞먹는 수준(55위)에 달한다고 IMD는 평가했다.
- 정부행정효율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은 기업관련입법(45위)과 사회정서(59위)항목이다. 기업관련 정부규제에 관한 최하위평가항목은 모두 최고경영자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어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인들은 산업전반에 대한 가격규제(59위), 외국기업의 공공부문 수주참여(56위), 기업 활동에 관한 보호주의적 정부개입(53위), 국내기업 인수합병 참여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53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선진국수준의 기업활동자유를 희망하고 있다.
- 기업경영효율부문에서 크게 향상된 부문은 태도 및 가치관(19위)이다. 경제개혁과 사회구조개편에 대한 필요성 인정(3위),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14위)와, 경쟁력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관(14위)에서는 매우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지만, 외국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문화적 개방성(49위)은 아직 낮다.
- ◆ IMD가 평가대상으로 하는 국가와 지역은 총 60개 경제단위로 51개국과 9개 지역(중국 제장성, 독일 바바리아, 스페인 까탈로니아, 일드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론알프스, 인도 마하라슈트라, 이탈리아 롬바르디, 브라질 상파울로)이다. 이 지역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수립과 기업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 ◆ IMD의 조사대상 51개 국가는 총인구가 46억7천6백만명으로 세계 262개국 63억명의 74%에 해당하며, 국내총생산(GDP)이 34조4백억달러(US)로 세계 GDP의 93%를 포함한다. 따라서 IMD의 세계경쟁력 연구는 국민소득통계를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가 만들어지는 모든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세계 주요 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 변화 추이

(1992 ~ 2004년, IMD평가 경쟁력 순위)

국가(지역)	2004	2003	2002	2002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미국	1	1	1	1	1	1	1	1	1	1	1	1	1
싱가폴	2	4	8	3	2	2	2	2	2	2	2	3	2
캐나다	3	6	7	9	8	10	8	10	12	13	20	17	17
호주	4	7	10	12	11	11	12	18	21	16	16	20	20
아이슬란드	5	8	11	10	10	13	18	21	25	25	.	.	.
홍콩	6	10	13	4	9	6	5	3	3	3	4	4	4
덴마크	7	5	6	15	12	9	10	8	5	7	7	6	6
핀란드	8	3	3	5	6	5	6	4	15	18	19	25	21
룩셈부르크	9	2	2	2	3	3	3	12	8
아일랜드	10	11	9	7	5	8	7	15	22	22	21	23	24
스웨덴	11	12	12	11	14	14	16	16	14	12	9	9	10
대만	12	17	20	16	17	15	14	23	18	14	22	11	11
오스트리아	13	14	15	14	18	18	24	20	16	11	11	13	12
스위스	14	9	5	8	7	7	9	7	9	5	5	7	7
네덜란드	15	13	4	6	4	4	4	6	7	8	8	8	8
말레이시아	16	21	24	28	26	28	19	17	23	23	18	14	14
노르웨이	17	15	14	19	16	16	11	5	6	10	12	21	22
뉴질랜드	18	16	18	21	20	17	17	13	11	9	10	18	18
(중국 제장)	19	38
(독일 바바리아)	20	31
독일	21	20	17	13	13	12	15	14	10	6	6	5	5
영국	22	19	16	19	22	19	13	11	19	15	14	16	15
일본	23	25	27	23	21	24	20	9	4	4	3	2	3
중국	24	29	28	26	24	29	21	27	26	31	34	.	.
벨기에	25	18	19	18	19	21	23	22	17	21	17	12	13
칠레	26	26	22	27	30	25	27	24	13	20	24	19	.
(스페인 까탈로니아)	27	28
에스토니아	28	22	21	22
태국	29	30	31	34	31	36	41	29	30	27	26	26	26
프랑스	30	23	25	25	22	23	22	19	20	19	13	15	16
스페인	31	27	23	24	25	20	26	25	29	28	27	30	30
(프랑스 일드 프랑스)	32	24
이스라엘	33	33	26	20	23	22	25	26	24	24	.	.	.
인도	34	50	41	42	41	42	38	41	38	37	38	42	42
한국	35	37	29	29	29	41	36	30	27	26	32	28	29
(영국 스코틀랜드)	36
(프랑스 론 알프스)	37	32
(인도 마하라슈트라)	38	44
포르투갈	39	39	33	32	28	27	29	32	36	32	30	32	31
슬로바키아	40	46	38	41
콜롬비아	41	45	42	44	45	45	42	33	33	33	35	.	.
헝가리	42	34	30	30	27	26	28	36	39	41	41	39	39
체코	43	35	32	35	37	37	37	35	34	39	39	.	.
그리스	44	42	36	31	34	32	33	37	40	40	40	41	41
슬로베니아	45	40	35	38	36	39
(이탈리아 롬바르디)	46	36
(브라질 상파울로)	47	43
요르단	48	48
남아공화국	49	47	39	37	39	43	42	44	44	43	42	43	43
러시아	50	54	44	43	47	46	43	46	46	46	46	.	.
이탈리아	51	41	34	33	32	30	31	34	28	29	28	27	27
필리핀	52	49	40	39	35	31	32	31	31	36	37	35	33
브라질	53	52	37	40	38	34	35	33	37	38	43	44	44
루마니아	54
터키	55	56	49	48	44	38	39	38	35	35	31	34	35
멕시코	56	53	43	36	33	35	34	40	42	42	29	33	34
폴란드	57	55	45	47	40	40	44	43	43	43	45	45	.
인도네시아	58	57	47	46	43	47	40	39	41	34	36	38	37
아르헨티나	59	58	48	45	42	33	30	28	32	30	33	.	.
베네수엘라	60	59	46	49	46	44	46	45	45	44	44	40	40

자료 : 경쟁력평가원, IMD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파트너 분석자료

□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간개발 투자 증대 필요

- 발전인프라 구축부문(29위)은 상대적으로 4개부문중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으로, 5개 항목 가운데 IT가 중심이 되는 기술인프라(8위)와 연구개발 중심 과학인프라(19위)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부존자원이 없고 땅이 좁아 운용능력이 떨어지는 경제인프라(55위)와 민주화 과정에서 경쟁시대에 역행하는 정책과 저항으로 일관해 온 교육관련 인프라(44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증대가 요구된다.
- IT관련 기술인프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는 광대역 통신 이용자수 인구 천명당 218명(세계1위), 인구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605명(5위), 월간 20시간 인터넷 사용비용 9.74달러(7위), 모바일 전화 피크시간대 3분 사용료 평균 0.29달러(9위)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IT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조제품 수출물량 가운데 하이테크 비중(8위)도 매우 높다.
- 연구개발 관련 과학인프라에서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기업부분 연구개발 인력의 특허권생산성이 18만 6600건(3위)과, 내국인 특허권 획득수가 연평균 2만 9,363건(3위)이다. 또한 총 연구개발 지출 GDP비중이 2.532%(10위), 국내 연구 개발 인력(7위), 기업부분 연구개발 인력(7위)으로 자원투입과 지적 재산권 형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 그러나 경제인프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상품수출 규모대비 에너지수입(54위)비중이 높고, 산업용 전력사용비용이 킬로와트당 0.55달러(53위)로 매우 비싸며, 일인당 경작면적(51위)도 매우 적어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하다.
- 특히 문제가 되는 부문이 교육관련 인프라 투자이다. 대학이상 졸업한 학력수준(5위)은 최우수급 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유용성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낮으며(59위),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를 국내시장에서 찾기가 어렵다(52위)고 기업인들은 평가한다. 글로벌리제이션과 복잡한 경제활동에 대응하는 재무관련 교육(51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52위)고 평가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관련 정부투자가 GDP대비 3.6%(세계 52위)로 세계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다. 이 모든 부담이 관외를 비롯한 사교육비로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부족하다보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2.1명(세계56위, 세계평균 19.66명), 중고등학교에서는 20.1명(세계49위, 세계평균 16.42명)으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 과거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부들이 행한 거꾸로 가는 개혁을 참여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을지 기대된다.

<표 4> 국가 경쟁력 상위 10개국과 순위 향상이 두드러진 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상위 10개국			
점수	국가	2004 순위	2003 순위
100.0	미국	1	1
89.0	싱가폴	2	4
86.6	캐나다	3	6
86.0	호주	4	7
86.0	아이슬란드	5	8
85.8	홍콩	6	10
84.4	덴마크	7	5
83.6	핀란드	8	3
83.1	룩셈불그	9	2
80.3	아일랜드	10	11

국가경쟁력 순위변화가 큰 국가(지역)			
순위변화	국가/지역	2004 순위	2003 순위
+ 19	(중국 제장)	19	38
+ 16	인도	34	50
+ 11	(독일 바바리아)	20	31
+ 6	(인도 마하라슈트라)	38	44
+ 6	슬로바키아	40	46
+ 5	대만	12	17
+ 5	말레이시아	16	21
+ 5	중국	24	29
+ 4	홍콩	6	10
+ 4	러시아	50	54

<표 5> 인구 규모로 본 경쟁력 상위 10개국

IMD 평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경쟁력 상위10개국			
점수	국가(지역)	2004 순위	2003 순위
100.0	미국	1	1
86.6	캐나다	2	2
86.0	호주	3	3
79.5	대만	4	4
75.9	말레이시아	5	7
74.3	(중국 제장)	6	14
73.4	독일	7	6
72.2	영국	8	5
71.9	일본	9	9
70.7	중국	10	11

IMD 평가 인구 2천만명 이하 국가경쟁력 상위10개국			
점수	국가	2004 순위	2003 순위
89.0	싱가폴	1	3
86.0	아이슬란드	2	5
85.8	홍콩	3	7
84.4	덴마크	4	4
83.6	핀란드	5	2
83.1	룩셈불그	6	1
80.3	아일랜드	7	8
79.6	스웨덴	8	9
78.9	오스트리아	9	11
78.8	스위스	10	6

□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산정 방법과 분석원칙

○ 국가경쟁력의 개념

- ◆ IMD의 세계 경쟁력 연구는 한나라가 자기영토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업 환경을 창조개발하고 관리 유지하는 정부의 능력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기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IMD는 기업경영환경을 창조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국가경영 능력을 평가한다.

○ 국가경쟁력의 분석 대상은 주요통계를 신뢰성 높게 산출하는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지속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발굴하여 현재에는 51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단위의 지방경제 활동을 2003년부터 평가해 현재 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경쟁력 평가 항목 데이터 수집방법

- ◆ IMD는 323개 데이터 중 설문조사 항목 112개를 제외한 211개의 통계를 국가별통계와 국제기구 집계 통계로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수집한 후 세계 57개 파트너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의 경우는 IMD 세계경쟁력연구 한국 측 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의 정진호 교수가 데이터 수집과 확인을 한다.
- ◆ IMD의 최고 경영자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는 매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시행한다.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의 회장과 최고경영자 뿐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벤처기업인, 외국인 투자기업, 공기업, 정부투자기업 등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참여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다.
- ◆ 2004년도 최고경영자 서베이는 세계전체에서 약 4000명 이상에게서 조사된 내용이다.
- ◆ 한국의 경우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 측 파트너를 맡아온 정진호 박사가 매년 추가해온 최고경영자 400여명을 IMD에서 매년 직접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e-메일로 확인하여 진행한다. 매년의 경제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기위해 새로운 서베이 대상자를 매년 250명씩 추가 조사 대상자로 포함한다.

○ 국가경쟁력 지수의 요인구성과 통계 지표 산출방법

- ◆ 총 323개 지표를 먼저 20개 경쟁력 결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경쟁력 결정에 통계적 유의성과 일관성이 있는 지표만을 선정하고 유의성이 없는 지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2004년의 경우 241개만 활용하였다.
- ◆ 경쟁력 20개 항목 활용지표를 표준화하여 표준편차를 가중치로 한 20개 소항목 지수를 만들어 점수(100점)와 순위(상대순위)를 정한다. 각 소 항목 5개씩에서 4개 부문 지수를 만들고, 전체 소항목지수로 국가경쟁력 지수를 산정한다.

<표 6>

아시아 8국의 국가 경쟁력(세계 60개 국가/지역) 순위변화 (2000 ~ 2004년)						
국가/지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인당 국민소득(2003년, 달러)
싱가폴	2위	3위	8위	4위	2위	\$ 21,825
홍콩	9위	4위	13위	10위	6위	\$ 23,322
대만	17위	16위	20위	17위	12위	\$ 12,657
말레이시아	26위	28위	24위	21위	16위	\$ 4,118
일본	21위	23위	27위	25위	23위	\$ 33,708
중국	24위	26위	28위	29위	24위	\$ 1,091
태국	31위	34위	31위	30위	29위	\$ 2,237
한국	29위	29위	29위	37위	35위	\$ 12,638

<표 7>

한국 경제 4대 부문 국가경쟁력(세계 60개 국가/지역) 순위 변화 (2000 ~ 200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가경쟁력 순위	29위	29위	29위	37위	35위
1. 경제운영성과	15위	15위	32위	40위	49위
2. 정부행정효율	31위	28위	26위	37위	36위
3. 기업경영효율	28위	35위	27위	45위	29위
4. 발전인프라구축	28위	26위	23위	30위	27위

<표 8> 2004년도 IMD 세계경쟁력연감 평가항목

- ◆ 60개 국가/지역(51개 국가와 9개 지역 포함)
 총인구: 46.76억 명(74%)
 GDP 합계: 36.04조 달러(92.3%)
- ◆ 323개 지표; 국내통계 지표 1/3, 국제통계 지표 1/3, 경영자 설문(112항목) 1/3
- ◆ 과거 5년간 통계 데이터 사용
- ◆ 57개의 세계경쟁력 연구 파트너와 연구협력

국가 경쟁력 평가 항목별 사용 지표수 : (총 323개 지표)							
1. 경제운영성과 Economic Performance	83	2. 정부행정효율 Government Efficiency	77	3. 기업경영효율 Business Efficiency	69	4. 발전인프라구축 Infrastructure	94
1.1. 국내 경제 활력 Domestic Economy	33	2.1. 재정구조 Public Finance	11	3.1. 생산성 Productivity	11	4.1. 경제 인프라 Basic Infrastructure	24
1.2.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20	2.2. 재정정책 Fiscal Policy	14	3.2. 노동시장 Labor Market	20	4.2. 기술 인프라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18
1.3. 해외투자 International Investment	17	2.3. 경제제도기구 Institutional Framework	17	3.3. 자금시장효율 Finance	22	4.3. 과학 인프라 Scientific Infrastructure	22
1.4. 고용 및 실업 Employment	9	2.4. 기업관련 입법 Business Legislation	22	3.4. 기업경영관행 Management Practices	10	4.4. 보건 및 환경 Health and Environment	17
1.5. 물가 및 생계비 Price	4	2.5. 사회정서 Societal Framework	13	3.5. 태도 및 가치관 Attitudes and Values	6	4.5. 교육경영 Education	13

□ IMD 세계경쟁력연구 2004의 한국경제시사점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무원칙적인 경쟁력전략은 더 이상 효과를 가질 수 없다. IMF 경제위기극복이 인위적이고 무원칙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와 노조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까지 만연했었던 반기업 정서로 볼 때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국가경영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경쟁력 전략은 또 다른 국가개입과 정부간섭만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87년 이후 지난 18년간 수많은 정부 관료와 영웅적인 기업경영인들의 주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도 국가경쟁력 30위대 수준도 개선된 게 없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한국 국민들은 1987년 군부독재 종결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회지배권까지 넘겨줘 참여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의 전체그림을 새롭게 만들고 이루어 나갈 권위를 갖게 되었다. 노대통령은 작년 취임 때 약속한 사회 및 경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는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가 아니다.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의 뜻을 몰라주어서 정부행정효율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게 아니다. 세계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세계를 다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 창조 환경 조성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은 상대적 개념이다. 1등이 아니면 항상 벤치마킹대상이 있고 1등이 되면 2등과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 15년간 세계경쟁력 1위를 유지해온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 IMD의 세계경쟁력평가는 분석적 오류나 데이터의 불완전성이 없는 완벽한 연구가 아니다. IMD는 특정한 나라를 위해 국가 경쟁력을 연구하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평가점수가 IMD의 노력과 경쟁력평가원의 협조로 향상될 수 없다. 한국의 국민, 기업, 정부 또 한국내 외국인, 외국기업이 협력해서 노력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경쟁력은 항상 변하는 것이며 한순간도 영원히 보장되는 법이 없다. 경쟁력은 경제원칙을 따르며 시장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제대로 된 시장이 만들어지면 기업의 경쟁력은 저절로 자라난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오

- ❖ IMD 한국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이 제안한 2004년도 한국경제의 경쟁력 도전과제는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 첫째, 한국경제를 동북아 경제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경제환경을 만든다. 한국경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의 압력과 경쟁의 고통을 쓴 약으로 삼켜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변국가로 확대하고 경쟁력 없는 시장을 개방하고 농민들의 반대로비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탄핵반대로 탄생한 새 정부의 몫이다.
 - 둘째, 한국정부가 기업의 가치창조와 국민의 행복안녕에 봉사하는 서비스 기업같은 정부로 다시태어나 부정부패가 없는 새로운 사회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한국 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 서비스 원칙이 서야한다. 국민만을 고객으로 생각하던 과거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기업도 고객으로 모시는 새로운 서비스 행동 원칙으로 정부가 다시 태어나야한다. 한국국민이 남의 나라 대사관 앞에 이민행렬을 서는 불행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 셋째, 기업경쟁력의 뿌리는 국민의 창조적 능력이며, 과학과 기술로 국민이 제대로 훈련되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때, 국내기업도 외국기업도 한국을 자기기업의 터전으로 생각한다. 아일랜드 국민의 지적수준과 문화적 역량이 서비스 산업을 일으켰다. 핀란드의 영어 인터넷 교육과 박사공부 국고지원이 지식과 정보의 코스트를 떨어뜨려 울루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 냈고 노키아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공부하는 국민만이 강한 기업을 가질 수 있다.
 - 넷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자유무역이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바다에 쾌속 벌크선을 깔듯이 대륙에 고속철도를 깔아나갈 수 있는 것은 번영을 향한 창조적 상업정신이다. 자유무역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고, 번영의 유혹은 전쟁과 질시의 숨을 죽인다. 번영을 북한에 팔아 한반도에 평화를 사야한다.
 - 다섯째, 인간개발은 가정과 학교, 대학과 정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항상 부족한 과업이다. 윤리적 가치관에 합당한 직장생활이 이루어지고, 가족전체가 함께하는 건강웰빙이 조화되도록 인간의 잠재능력을 무한대의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험이다. 기업이 가장 현명한 인간개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